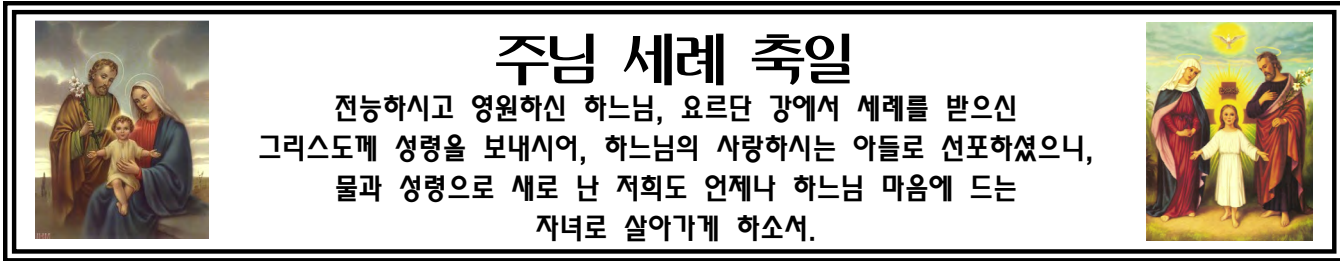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주님 세례 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
- 쉬는 교우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봉헌 생활 해인 올해에 수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다시 찾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2/2)을 기념하며, 일년 동안 가정과 제대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각 4불이며, 전례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임신부님 모국방문

주임신부님이 오는 1/12(월) ~ 1/30(금)까지 한국엘 다녀오십니다. 사제서품식과 비자갱신을 위해서 입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청주교구 사제서품식

- 일시 : 1/15(목) 오전 10시
- 주례 :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와 사제단
- 후보자 : 주지옥 가시미로(감곡), 박형용 요셉(연수), 장건 알베르또(지현), 임종락 라파엘(홍덕), 최현 프란치스코(모충), 김인환 히폴리토(모충), 안주형 시몬(꽃동네)

기타

- 지난 주일, 자원봉사 국가 인증서(The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기타 문의는 최선윤 마리아 자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18)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 운영을 위해 교무금과 기타 도네이션으로 도움을 주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주임신부 합장.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	512	163/496	47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이우영 가브리엘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준영 요셉 김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4	70명	345불	650불
이우석, 조지연, 홍순익, 한운성(총 4세대)			

☞ 구유예불 : 598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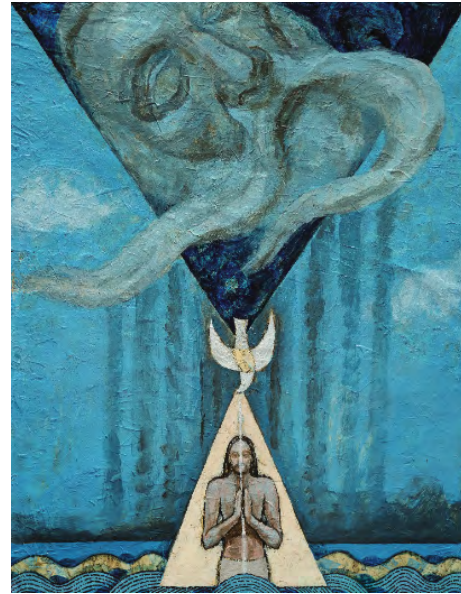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찬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세례성사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을 때의 모습이 하느님 앞에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상처 받으며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례성사를 받던 은총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 그림 묵상

####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축복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모양으로 예수님께 머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주님의 장엄한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에게 세례의 순간은 회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입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이사야서 42,1-4.6-7<또는 55,1-1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 답 송 : 주님 - 당신 백성에 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바쳐라. 주님께 그 이름의 영광 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조배 드려라. ◎

○ 주님의 소리는 물들 위에 많고 많은 물 위에 주님께서 계시다 주님의 소리는 우렁차시다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다. ◎

○ 엄위의 하느님께서 우렛소리 내시니 창생들이 그 성전에서 영광이여 하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다. ◎

제 2 독서 : 사도행전 10,34-38<또는 1요한 5,1-9>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르코 1,7-11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통해 하느님께로”



주님 세례 축일인 오늘은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중요한 직분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훌륭하게 실천하며 살았던 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제직입니다. 사제직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자(사제)의 역할, 하느님의 은총과 선하심을 세상과 함께하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르톨로메오 데 라스 카사스(1474~1566) 신부를 소개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콜럼버스(1451~1506)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라스 카사스 신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권을 최초로 부르짚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와 교회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오? 그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외쳤습니다.

1515년, 소유하고 있던 쿠바의 농장을 포기하고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한 후 사제가 돼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복자들이 저지른 ‘신대륙 파괴’를 규탄했습니다. 또 많은 저서를 통해 참다운 화해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회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페루의 해방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 카사스 신부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참다운 사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왕직은 봉사입니다. 페루의 ‘빛자루 수사’ 마르티노 데 프레스(1579~1639) 성인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흑인인 성인은 스페인 출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인종 차별을 겪었습니다.

성인은 이발사(돌팔이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이를 뽑아준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온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를 신청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수도회 문지기로 사는 것을 겨우 허락 받습니다.

그는 7년간 동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청소와 온갖 잡일을 하면서 철저히 하느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도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수도복 착용만 허락 받았습니다. 성인은 계속해서 수도회를 위해 봉사하고 가난한 리마(페루) 주민들을 치유해줬습니다. 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느님의 신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사는 곳 건너편에 성인보다 7살 아래인 백인 여성 로사 데 리마(1586~1617) 성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녀는 필리핀 선교를 원했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미니코회 제3회원으로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후 54년 만에 남미 최초의 복자가 됩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이보다 291년 늦은 1962년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 복자로 선포됩니다. 흑인들과 유색인들의 후손들이 마르티노 성인의 영성과 삶을 꾸준히 기억하고 실천했기에 이뤄진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직은 정의 선포라 생각합니다. 예언직은 하느님 기준과 시각으로 세상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모든 사람의 깨달음) 운동’을 50여 년 동안 이끌어 가고 있는 아리아트라네 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참여 불교와 간디 사상에 뿌리를 두고,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근간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3가지 독(욕망, 성냄, 무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식수 설비 설치, 도로·화장실·주택·도로 건설, 에너지원 확보 등 다양한 일을 펼치며 가난한 마을의 자립을 이끌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르보다야 운동을 통해 자립한 마을이 1만 5000여 개에 이르고, 무상 유치원도 4335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리아트라네 박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위대한 도덕과 원칙 속에서 내 마음이 작동하는 ‘독’을 깨우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고 강조합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실천한 이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세 가지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 제8 장 준성사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12,1-3).

### 【설명】

**이름을 떨친다** : 이는 임금을 위한 수식어이나(2사무 7,9), 여기서는 성조 아브람에게 적용되고 있다(주석 성경, 91).

**너를 통하여** : “네 안에서”로 옮길 수도 있다(상동).

**복을 받을 것이다** : 이 약속은 “세상의 모든 종족들” 또는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 구절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강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밝히려는 듯하다. 이처럼 성경은 첫 장들부터 범세계적인 차원의 구원 약속을 담고 있다(상동).

### 【설명】

강복(降福)은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축복(祝福)은 하느님께 복을 내려주시도록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준성사(準聖事)란 교회가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일곱 가지 성사에 준하여 제정한 의식을 말한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축성, 축복, 구마(마귀 쫓음) 등이 이에 속한다. 준성사에는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성호, 성수 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 신자들은 성물을 구입하면 사제의 축복을 청하고, 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마련하면 사제의 축복을 청한다. 이러한 대중 신심 행위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더욱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 【교회의 가르침】

▶ 준성사 중에서도 축복(benedictio)은 중요한 것이다. 축복은 하느님의 업적과 선물에 대한 찬미와,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복음 정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교회의 전구를 포함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78항).

▶ 준성사 중에는 우선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온갖 영적인 복”(에페 1,3)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보통은 그리스도의 십자 성호를 그어 축복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71항).

▶ 사제는 어느 성물에 대하여서든지(십자가, 목주, 성상 등) 어느 경우라도 가장 짧은 약식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 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24조).